

빙속특집
불기 2552년

정진
의 삶으로
행복해요

인욕
의 삶으로
행복해요

■익산 대원경·덕산거사 부부

“흘린 땀방울만큼 下心 커져”

“절 하다보면 몸과 마음이 하나가 됩니다. 처음엔 누구나 아프고 힘들지만 참으면 육신을 조복 받고 한마음으로 3000배, 100만배 절할 수 있죠.”

익산 사자암 삼천배 정진회를 이끌어 전북 지역 포교불사의 동량인 대원경 보살(심명숙·51)은 절수행 전문가다. 개신교 집안에서 성장해 시어머니 권유로 처음 사찰을 찾아 절했을 때는 “벼락 맞을까봐 무서웠다”는 그녀가 지금은 어떻게 절수행 전문가가 됐을까?

대원경 보살은 “부처님께 약속한 대로, 스님이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라며 웃는다. 보살의 절수행은 1996년 입실 상의암 동호 스님을 만나서 시작했다.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100만배 정진하던 동호 스님을 보고 나도 한번 해보고 싶었다”는 대원경 보살은 스님에게 절하는 법부터 다시 배우고 매일 500배부터 시작했다. 보살은 “온몸이 쉬고 힘들었지만 해야 하는 줄 알고 하다 보니 500배가 몸에 익었다. 스님이 1000배로 올리라 해서 매일 하다 보니 10만배 기도를 회향했다. 어느새 하루 1만배는 거뜬할 정도가 됐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건 시작에 불과했다.

실상사 일초 스님을 만나 <화엄경> 공부에 몰입했던 그녀

인고의 세월 견디며 절수행
“고비 넘기니 하루하루 행복”

지만 정진 공부가 너무 어려웠다. <화엄경> 공부가 너무 어려워 못하겠다”는 보살에게, 일초 스님은 “그거 안할려면 100만배 해라”고 말했다. 대원경 보살은 예전 1000배씩 100일 해본 경험에 100만배도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매일 1000배씩 시작했다. 2주 후 보살에게 진도를 물은 스님은 매일 2000배로 올랐고, 1달 후부터는 매일 3000배씩 하게끔 했다. 매일 3000배에서 4000배씩 하게되니 몸이 너무 고되 그 만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던 보살이 일초 스님에게 더 이상 못하겠다고 했다. 그런 보살에게 스님은 <초발심자경문>의 구절을 들려줬다. “절하는 무릇이 얼음처럼 차도 불을 생각하는 마음 없고, 주린 장자가 굶어질 것 같아도 밥을 구하는 생각이 없다(배슬(拜膝)이 여빙(如氷)이라도 무연화심(無戀火心)하며, 아장(餓腸)이 여절(如切)이라도 무구식염(無求食念)이니라)”

대원경 보살은 “스님의 <초발심자경문> 설명을 듣고 다시 마음을 내 4000배로 올랐다. 그로부터 보름 후 스님은 매일 5000배를 하라고 했다. 힘들어 못하겠다고 할 때마다 <초발심자경문> 구절을 되풀이했다”며 그때를 회상했다. 그녀 스스로 생각해도 우직했다. 그런 그녀에게 스님은 “명정해서 계신이 없어야 수행한다”고 말했다. 대원경 보살은 절하면서 울기도 많이 울었다. 보살은 “처음에는 힘이 들어서 울었다. 그러다 참회의 눈물이 흘렀고, 결국엔 감사의 눈물이 흘렀다. 결국 하루에 1만배까지 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대원경 보살의 절수행에는 다른 신도들의 수근거림부터 남편의 성화

등 마장도 많았다. 하지만 절수행이 무르익을수록 모든 사람에게 감사하게 됐다. 자신을 낮추며 절할수록 하심도 커졌다. 보살은 마장으로 다가온 이들에게도 감사의 3배를 올렸다.

불보살 가피도 따랐다. 꿈에 두 스님이 나타나 몸에서 썩은 피를 빼낸 뒤 보살의 몸을 건강해졌다. 또 몸이 고되 밤이면 공공대는 아내가 안타까워 “힘들게 절은 왜 그리 많이 하나”며 핀잔줬던 덕산 거사의 꿈에는 사천왕이 나타났다. “보살이 무슨 기도를 하는 줄 아냐 사천왕이 호통을 치는데 정신이 번쩍났다”는 거사는 그 날 이후 보살을 도와 청소, 설거지 등 집안일을 했다. 수행도 열심히 했다. 거사는 대원경 보살을 “선배님”이라 부른다. “선배님을 따라 절을 하면 어느 때 눈물이 흐르더니 그리 고마울 수가 없었다. 그래서 바로 선배님에게 3배를 올린 적도 있었다”는 덕산 거사(황금음·58)의 주특기는 <관음경> <묘법연화경> 등 관세음보살 보문품) 독송. 처음부터 열불하는 것이 좋았다는 거사는 “관세음보살을 닮겠다”는 원을 세우고 <관음경> 독송을 시작하게 됐다. 아무 때나 독송



을 한다는 거사를 길 거던 사람은 비웃기도 했다. “당신은 나와 지나칠 인연인데 나는 <관음경>을 독송하고, 당신은 나를 웃으며 지나친다고 생각하면 그걸로 족하다”는 덕산 거사.

거사는 “수행은 아이스크림 먹는 것과 같다”고 비유했다. 그는 “처음 한입은 입이 얼얼할 정도로 차지만 익숙해지면 단맛이 느껴진다는 것과 같다. 인욕으로 수행의 고비를 넘기면 모든 것이 바뀐다”고 말했다.

함께 수행하니 부부가 나누는 대화는 모두가 법담이고, 부부가 같은 꿈을 꾸는 일도 잦았다. 집안일은 절로 풀렸다.

“부처님께 한다고 했으면 꼭 해야 한다. 부처님 법은 한치도 오차가 없다. 마음 낸 것 지키다 보면 모든 어려움과 괴로움이 사라질 것”이라는 대원경 보살, 그리고 “선배님을 도울 뿐”이라는 덕산 거사.

2007년 9월 사자암 결사를 마친 대원경 보살의 소문은 전주까지 퍼져 이제는 송광사에서 수행결사를 이끄는 중이다. 하나, 둘 조심스럽게 절수행을 따르던 사람들이 이제는 50여명이 넘었다. 부부가 흘린 땀방울과 인고의 세월보다 대원경 보살과 덕산 거사의 행복은 한없이 커보인다. 조동섭 기자

忍辱

■아미타 정근하는 박종갑·박상숙씨

“도반이 수행에 큰 힘이죠”

무엇이든 꾸준하게 해 나가기 힘들다. 일것 하다가도 그만두고 싶은 경계가 금세 닥쳐오기 때문이다. ‘작심 3일’이라는 말도 그만큼 좋은 습을 들이기 힘들기 때문에 나온 말이다.

그런데 매일 아침 열불수행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 경기도 이전에 거주하는 박종갑(64·법명 미타행)·박상숙(65·법명 수월행)씨가 그 주인공이다. 열불수행 도반으로 살아온 지 벌써 10년. 두 사람은 서로에게 의지해 가며 버려질로 나아가기 위해 ‘정진(精進)’하고 있었다.

두 사람을 만난 장소는 박종갑씨가 운영하는 한복집이었다. 박씨는 동네에서 40년간 한복집을 지켜왔다. 일을 하면서도 ‘나무아미타불’을 놓지 않는 박씨. 한 자리에서 삶을 가꾸는 그의 정성이 답답 묻어나는 가게 자리 역시 박씨 삶 속의 정진 현장인 셈이다.

열 동네에서 38년간 세탁소를 운영했다는 박상숙씨는 지금은 집안 조카에게 일을 물려준 상태다. 세탁소 일을 접고는 열

이 수행활동을 하는 것은 한계가 있었다는 사실을 확실히 깨달은 것이다. 그 때부터야 ‘정진’이 무엇인지 어렵듯이나마 알게 된 것 같다고 말이다.

이들은 동산불교대학에 다니기 전에도 수행에는 적극적이었다. 박종갑씨는 매월 초하루에 3000배 철야정진을 해왔었다고 한다. 박상숙씨 역시 불자 집안에서 사찰 찾기를 게을리하지 않은 독실한 불자였다. 하지만 무엇인가 채워지지 않은 ‘2%’가 있었다. 그것이 바로 ‘배움’이었다. 이들은 동산불교대학을 통해 교리와 사상에 대해 접함은 물론 열불만일회에 가입, 열불정진에 대한 원을 세우고 실천할 수 있는 시절인연을 만났다. 그럼으로써 자신들의 수행 활동에서 무엇이 필요하니 파악하게 됐다.

정진을 계속 하다 보니 이들이 정진을 하며 세우는 원도 ‘나’와 ‘내 가족’ 등 개인적인 부분에서 ‘이웃’과 ‘사회’로 점차 넓어져갔다. “예전에 어떤 스님이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하고 원을 세우면 그 기도가 훨씬 빠르다고 하셨는데, 정말 그런 것 같아요.”(박종갑씨)

이들은 현재 인천지역 동산불교대학 졸업자 20여명과 함께 모임을 만들어 열불봉사(장례봉사)와 군법당 지원, 인천



10년을 함께 매일 열불정진
이웃·사회 위한 願도 함께

승가원자비복지타운 후원, 어린이법회 후원 등을 이끌고 있다. 지역불교에 활기를 불어넣는 것, 그것이 이들이 현재 매일 같이 세우는 원이기 때문이다.

열불봉사의 경우, 박종갑씨가 염을 하고 박상숙씨는 요령을 흔들며 상가(喪家)를 함께 지켜준다. 특히 돈이 없어 영가를 제대로 모시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면 그들은 그냥 지나치지 않는다. 지역 사회에 오랜 기반이 있어 보니 이젠 그런 사람들이 생기면 으레 이들을 찾는다.

“이 봉사를 하고 싶어 동산불교대학에서 불교장례의식도 배웠어요. 어느 날 부턴가, 봉사를 하겠다고 발원했더니 길이 보이더라고요. 이렇게 함께 봉사할 수 있는 것도 부처님께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박상숙씨)

열불봉사 뿐만 아니라 지역에 불교 유치원 하나 없는 상황이 아쉬워 이에 대한 발원을 하다 보니 인근 불교회관에서 1주일에 한 번씩 어린이법회를 진행하게 됐다. 개인의 수행력이 결코 개인의 것만이 아니라 인드라망처럼 연결돼 있구나 싶다.

이들은 스스로를 ‘그냥 시골 할머니’라 말한다. 맞다. 겉모습은 그저 정다운 우리 이웃이다. 하지만 이들의 마음속에는 불법을 만났다는 기쁨, 사회 속에서 하나씩 이뤄져가는 원을 세우는 보람 등이 이미 팍 차 있다. 이웃 중 누군가가 이들과 함께 사회를 위해 마음을 내고 끊임없이 정진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을 때, 같은 불자로서 감동적이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김강진 기자

精進



佛紀 2552年 Buddha's birthday | 수행정진으로 세상을 향기롭게

| | | | | |
|--|---|--|--|--|
| <p>수행정진으로 세상을 향기롭게...</p> <p>대한불교 조계종 문수산축서사</p> <p>주지 무여</p> <p>신도일동</p> <p>■ 경북 봉화군 물야면 개단리 TEL 054)672-7579</p> | <p>수행정진으로 세상을 향기롭게...</p> <p>대한불교 조계종 천봉산흥복사</p> <p>주지 선곡 철형 사부대중일동</p> <p>■ 경북 상주시 만산동 113번지 TEL 054)534-5633/5634</p> | <p>수행정진으로 세상을 향기롭게...</p> <p>대한불교조계종 제8교구 말사 한천사</p> <p>사부대중일동</p> <p>■ 경북 예천군 감천면 증거리 TEL 054)652-6911</p> | <p>대한불교 조계종</p> <p>월명산동국사</p> <p>사부대중일동</p> <p>■ 전북 군산시 금광동 135-1번지 TEL 063) 462-5366 홈페이지 : http://www.dongguksa.or.kr/</p> | <p>대한불교 조계종</p> <p>보현사</p> <p>주지 종현 사부대중일동</p> <p>■ 전북 군산시 옥구읍 수산리 569번지 TEL 063)471-0198</p> |
| <p>온누리에 부처님의 자비광명으로 세상을 향기롭게...</p> <p>지장기도도 수양산벽종사</p> <p>불교 교양대학, 교양대학원 운영</p> <p>신도일동</p> <p>■ 경북 봉화군 물야면 개단리 TEL 054)672-7579</p> | <p>대한불교 조계종 제15교구</p> <p>참선마을 금강선원</p> <p>주지 초중 사부대중일동</p> <p>■ 경남 함천군 함천읍 장계리 950-3번지 TEL 055)931-9590 홈페이지 : http://www.ggzen.or.kr/</p> | <p>대한불교 조계종</p> <p>월명산관음사</p> <p>주지 재곤 사부대중일동</p> <p>■ 전북 군산시 나운동 755-1번지 TEL 063)471-0198</p> | <p>한국불교 태고종</p> <p>오성산성흥사</p> <p>주지 송월 사부대중일동</p> <p>■ 전북 군산시 성산면 둔덕리 26-1번지 TEL 063)453-0050 홈페이지 : http://sungheungsa.com 인터넷 카페 : 네이버 군산 성흥사</p> | <p>한국불교 태고종</p> <p>오성산성흥사</p> <p>주지 송월 사부대중일동</p> <p>■ 전북 군산시 성산면 둔덕리 26-1번지 TEL 063)453-0050 홈페이지 : http://sungheungsa.com 인터넷 카페 : 네이버 군산 성흥사</p> |